

#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옥 경 희\*\*

Dept. Social Welfare, Gwangju Univ.

Associate Professor : Ok, Kyung-Hee

### 〈Abstract〉

The number of grandparents who hav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ir grandchildren is growing.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extent of this phenomenon and some of the issues these grandparents face in surrogate parenting. The sample consists of 69 grandparents(63 grandmothers and 6 grandfathers) of grandchildren who have lived with them at least 6 months without their parents. Th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ported that caregiving brought negative changes in relations with their own children, economic situation and health condition. They concerned most about the issue of good manners behavior of grandchildren and making good friends and needed social supports in terms of house cleaning and cooking and transportation for after school activities. Caregiver burden was related to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degrees of life changes, economic hardship due to caregiving, grand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 with grandparents' own children.

▲주요어(Key Words) : 조부모-손자녀가족 (grandfamily) 손자녀양육 조부모 (custodial grandparents or grandparent caregivers), 양육부담 (care burden), 생활변화(life changes),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 1. 서 론

부모의 이혼이나, 신체 및 정신질환, 약물복용이나 알코올중독 혹은 미혼모의 증가로 인하여 조부모-손자녀가족<sup>1)</sup>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부모와는 달리 양

육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손자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생기 넘치는 관계'로(vital connection) (Kornbaber, 1994, Glass & Huneycutt 2002에서 재인용) 특징 지워지던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의 증가로 적용에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370만명의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모 없이 손자녀들을 기르는 조부모는 어림잡아 100만명일 것이라 추정한다(Cox, 2000). 우리나라도 손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0년에 들어서 전국 노인인구 337만명 중 121,300명의 노인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보고이다(최혜경, 2002). 우리나라 조부모-손자녀가구는 1995년 35,194가구에서 2000년 45,225로 5년 동안에 무려 10,000여 가구가 늘어나 5년 사이에 무려 1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5, 2000). 이미 양육부담에서 벗어난 조부모가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옥경희(E-mail : yundoh@gwangju.ac.kr)

1) 조부모-손자녀가족은 조부모가 자녀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일컫는다. 부모-손자녀가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e.g. Minkler & Fuller-Thomson, 1999) 조부모가 부모없이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적어도 6개월이상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만을 조부모-손자녀가족이라 지칭한다.

시 어린 손자녀를 책임지는 일은 사회의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며, 가족의 발달주기 측면에서도 예기치 않았던 일이다. 조부모 - 손자녀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부담, 성인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본인의 노화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Smith & Dannison, 2002). 조부모 - 손자녀가족의 열악한 상황은 양육 책임자인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양육받는 손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조부모 - 손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손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실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수와 영역에서 시작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조부모 - 손자녀가족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양육실태(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우울감(최해경, 2002)과 가족기능(박창기, 2002)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부모-손자녀가족의 양육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대상지역이 농촌에 국한되어 있으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 2002; 최해경, 2002) 여성노인에 한정되어 있거나(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최해경, 2002), 조부모는 매우 간단한 질문에 참여하여(박창기, 2002) 조부모-손자녀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양육실태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손자녀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생활실태(남명숙, 1999)나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신혜섭, 1999)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조부모가 부모인 자녀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조부모-손자녀가족에 포함시키기에는 역시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간단한 양육실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부담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직 이러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전반적인 양육상황을 살펴보고, 조부모의 양육부담 정도와 양육부담과 관련이 있거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실태와 양육동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생활변화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손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과 양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조부모 - 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부담정도는

어떠하며, 양육부담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양육실태와 양육동기

조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의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조부모 - 손자녀가족의 비율은 도시나 읍에서는 4.7%이고 읍부에서는 7.7%이지만(통계청, 2002), 이들의 대부분은 조모들이며 조부들의 경우는 단지 2.6%를 차지하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많아도 5%에 지나지 않았다(성지혜, 2001). 구미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조부만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라는 보고이다(Casper & Bryson, 1998, Glass & Huneycutt 2002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조부모들은 전체의 38%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성지혜, 2001).

손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조모의 평균연령은 66.9세이며, 60세 이상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그러나 미국의 경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평균 연령은 53세에서 57세라고 보고 되며(Burton, 1992; Dowdell, 1995; Kelley, 1993; Minkler, Roe & Robertson-Beckley, 1994, Smith & Dannison, 2002), 77%의 조부모가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있으며 65세 이상은 20% 정도를 차지한다(Caputo, 2000).

손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연령은 5세 미만에 맡겨진 경우가 전체의 68%였고, 이중에서 1세 미만도 26%로 나타났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2002)의 연구에서는 5세 이전이 33%, 초등학교 입학전 30.4%, 초등학교때가 34.8%, 중·고등학교 때가 1.8%라고 보고한다. Fuller-Thompson(1997)의 연구에서 조부모들의 절반 정도(44%)가 손자녀가 아기였을 때 양육책임을 맡았고, 72%는 손자가 5세 이전에 양육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손자녀를 돌본 기간은 5년 이하가 전체의 47%, 5년에서 10년 사이가 34%, 10년 이상도 19%를 차지하였는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10년 이상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가 20.5%(박창기, 2002) 혹은 15년 이상도 25%를 차지하였다(최해경, 2002). 미국의 경우 5년 이상 돌본 조부모가 31%, 10년 이상이 11% 정도이고(Caputo, 2000) 혹은 56%의 조부모들이 3년 이상 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ller-Thompson et al., 1997).

돌보는 손자녀는 대부분이 친손자로 69%에서 85.4%를 차지한다(박창기, 2002; 성지혜, 2001; 최해경, 2002). 미국의 경우는 69%의 손자녀가 외손자였고(Fuller-Thompson, Minkler, & Driver, 1997), 성별로는 손녀가 74%를 차지하였다(Silverstein & Vehvilainen, 1999). 조부모들이 돌보는 손자녀의 수는 1명에서 5명까지 나타나는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1명이 전체의 40%에서 58%를 차지한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 2002; 최해경, 2002). 이러한 수치는 미국에서도 비슷하여 손

자녀를 한명 돌보는 비율이 59%, 두 명이나 세 명의 경우는 35%였다(Caputo, 2000).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35%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손자녀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주로 천식이나 중이염등을 앓고 있었다. 96%의 손자녀가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을 방문했으며, 27%는 응급실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한다(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대부분의 조부모들은 돌보는 손자녀들과의 관계를 좋다고 평가하였는데 매우 좋다가 61%, 좋다가 30%를 차지하고 있었다(Bowers & Myers, 1999).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를 다룬 국내연구에서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도 이혼이 첫째가는 이유로 지적되고 그 비율은 35%에서 52.7%를 차지하고 있었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 2002; 성지혜, 2001; 최해경, 2002).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인데 주로 부사망은 모부재로 이어져서 부사망과 모부재의 비율이 20%에서 35%로 나타나고, 사망은 이보다 낮아 12%에서 21.9%를 차지한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 2002; 성지혜, 2001; 최해경, 2002). 이 외에도 맞벌이나 실직, 빚이나 재산탕진이 10% 미만을, 사고 및 질병이나 수감생활, 10대 임신이 5% 미만을 차지하였는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자녀의 질병이 6.3%를 차지하기도 한다(성지혜, 2001). 외국의 경우는 국내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자녀의 이혼보다는 아동학대, 부모의 약물중독이나 정서적 문제 등이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원인으로 꼽힌다(Hays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지만 알코올중독이 43% 혹은 자녀의 학대나 방임이 39%로 나타났다(Bowers & Myers, 1999).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을 결정한 것은 친족을 돌보는 전통, 손자녀와의 관계, 양육기관에 대한 불신, 조부모밖에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종교적인 이유, 혹은 다른 조부모가 양육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다(Gibson, 2002).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봐야 한다가 전체 응답의 76%를 차지하였고, 시설에 보내기 싫어서가 다음으로 13%, 다른 사람들이 돌보는 것이 싫어서가 6%, 기타가 5.5%였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다중 응답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이 기관보호 받기를 원치 않아서에 70%,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서에 68%, 손자녀를 기르고 싶어서에 66%, 자녀들보다 더 나은 부모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에 6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Hays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 2. 조부모의 생활변화

조부모가 손자녀양육을 담당한 후 일어난 생활변화를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보고한다.(권인수, 2000; 김미영, 2002;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신혜섭, 1999; Burton, 1992; Dowdell, 1995; Dowdell & Sherwen, 1998;

Kelley, 1993; Kelley, Yorker & Whitley, 1997; Kropf & Burnette, 2003; Minkler, Roe & Price, 1992, Whitley, Kelly & Sipe, 2001). 건강의 악화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변화인데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의 발달단계적 특성상 체력의 저하와 더불어 육아활동으로 비롯된 건강상의 문제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권인수, 2000;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Dowdell, 1995; Minkler, Roe & Price, 1992). 우리나라 조부모들도 손자녀 양육 후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였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45%가 손자녀양육으로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다리불편, 어깨통증, 허리아픔 등이 생겼다고 호소하였다(남명숙, 1999). 미국 조부모들의 경우 양육 후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비율은 25%에서 45%로 우리나라 조부모들의 경우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Burton, 1992; Minkler & Roe, 1993; 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그러나 손자녀양육이 조부모의 건강을 악화시키지는 않으며 실제로 74%의 조부모들이 양육 후 건강에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한다(Bowers & Myers, 1999; Pruchno, 1999). Solomon과 Marx (1999)도 손자녀양육이 조부모의 건강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조부모가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결과라고 해석한다.

경제적 형편의 악화가 건강상 문제 다음으로 빈번히 지적되는 손자녀 양육에 뒤따르는 조부모들의 생활변화이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 2002; 남명숙, 1999; Bullock, 2004; Burton, 1992; Dowdell, 1995; Kelley, 1993; Minkler & Roe, 1993). 경제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78%를 차지하여 건강보다 더 많은 변화를 보인 영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줄어든 것도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생활변화로 지적된다(권인수, 2000;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친구나 친척관계와 같은 사교적 활동을 위한 시간적 제약으로 고립감을 느끼며(Bullock, 2004; Kelly, 1993),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돌볼만한 여유가 없음을 지적한다(Minkler, 1994). 권인수(2000)의 연구에서는 개인시간 부족과 친구나 이웃과의 교제기회의 감소가 건강이나 경제형편보다 더 큰 부정적 변화라고 응답하였고, 피곤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 뒤를 이었다.

손자녀양육은 조부모의 가족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35%의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한 후로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한다(Bowers & Myers, 1999). 우리나라 조모들의 경우도 36%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조부모들은 부모들과 떨어져 있어서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일을 의논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실망스럽거나(Bowers & Myers, 1999), 손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서 자녀와 세대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고도 한다(Kelly & Danato, 1995). 하지만 18%에서 22%에 달하는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 후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보고한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Bowers & Myers, 1999). 조모들이 손자녀를 돌본 후 배우자와 갈등을 경

협하거나(Kelly, 1993), 부부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하였다(Bowers & Myers, 1999).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 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다른 약물을 복용했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Pinson-Milburn, Fabian, Schlossberg, & Pyle, 1996).

### 3. 양육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조부모들의 75% 이상은 손자녀의 교육, 손자녀의 개인적 안전과 안정, 손자녀의 정서적 건강, 손자녀의 신체적 건강과 같은 일들로 걱정한다고 대답하였다(Landry-Meyer, 1999). 우리나라 조모들의 경우 돌보는데 힘이 부치거나, 학습지도가 어려운 일, 손자녀의 간병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였고, 손자녀가 말을 안듣거나, 손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부족에 대해서도 5%의 조부모가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 훈육, 10대와의 적응, 친부모의 부재에 대한 설명, 숙제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조부모들의 63%가 지지집단을 필요로 하였고, 58%는 자원을 찾고 사용하는 법, 56%는 연결망, 52%가 법률의 개정, 49%가 법률적 도움, 42%가 손자녀를 돌보아 주고, 35%는 경제적 도움, 26%가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손자녀의 양육, 26%가 건강보험, 25%가 죽음에 대한 상담, 16%가 운송수단을 지지할 것을 원하였다(Blackburn, 2000). 실제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건강, 특수 교육이나 가정교사, 손자녀의 상담과 같은 도움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조부모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상담, 손자녀를 잠깐 돌보아 주거나, 부모교육이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교육 등의 지원을 받았다(Burnette, 1999).

조모들이 희망하는 사회정서적 서비스로 손자녀양육 노인을 위한 지원보다는 손자녀를 위한 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는데 손자녀 후원 및 결연에 41%, 손자녀 학습지원에 42%의 조부모가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는데, 가사지원은 23%, 상담이 22%,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노인생활교육프로그램 지원에는 각각 18%만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손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이들은 손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우고 싶다는 동기를 보였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다고도 대답하였다(남명숙, 1999).

### 4. 양육부담과 관련변인들

조부모들은 부모 노릇을 하며 손자녀를 키우는 일에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데(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신혜섭, 1999), 특히 손자녀의 훈육이 어렵고 손자녀가 말을 잘 안들때 더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다(신혜섭, 1999).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조부모보다 2배 이상 더 우울해하고(Minkler, Fuller-Thompson et al., 1997), 심리적 스트레스도 일반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다(Kelley, 1993). Kelley(1993)의 연구에서

44%의 조부모가 스트레스 점수가 상위 90%이상이라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개입이 필요한 상태이고, 부모갈등척도에서 80점 이상을 보인 비율도 37%로 이들 역시 임상적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인수(2000)의 연구 결과는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대해 그다지 높은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고 보고한다.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부담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은 조부모의 특성과 손자녀의 특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조부모의 건강,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의 유무, 돌보는 시간, 돌보는 역할에 대한 자신감, 돌보게 된 동기 등이 조부모의 양육부담에 차이를 만드는 변인이었다.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못할 때 양육부담이 더 높았고(권인수, 2000; 김소희, 1997), 조부모의 연령이 낮았을 때 손자녀와 더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였고(김소희, 1997; 박경란, 1994), 학력이 높았을 때 손자녀와 더 친밀하게 지냈으며(김소희, 1997; 배경미, 1988), 배우자가 없었을 때(Dowdell, 1995), 돌보는 시간이 많을 때(Bowers & Myers, 1999; Musil, 1998), 돌보아야 하는 손자녀의 수가 많을 때(Dowdell, 1995),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자녀의 부탁으로 손자녀를 돌보았을 때(권인수, 2000) 손자녀양육을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의 특성으로는 손자녀의 나이, 성별 그리고 친족관계라고 나타났는데, 손자녀의 나이가 많았을 때(Dowdell, 1995; Kelly, 1993), 여아보다 남아일 때(Junior, Shore, Henderson & Labert, 1998) 조부모들은 양육부담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조부는 손녀보다 손자를 더 가깝게 느꼈고(Kahana & Kahana, 1971), 손자들보다는 손녀들이 조부모와 활동을 더 많이 공유하였다(Kennedy, 1992). 친손자녀보다 외손자녀를 돌보고 있을 때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은 더 높았다(남명숙, 1999).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자녀 없이 손자녀를 적어도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살고 있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조모 73명과 조부 6명 모두 79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중 조부모가족은 42가구, 조부가족은 4가구, 조모가족은 33가구로 각각 53%, 5%, 4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모의 연령은 51세에서 79세로 평균 64세였으며, 조부의 경우 70세에서 75세에 해당하였으며 평균연령은 73세였다.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2. 연구도구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조부모를 포함

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들의 관계, 직업, 종교, 교육수준을 조사하였다. 손자녀에 대해서는 학업성적, 건강,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작년 한해 병원에 갔다 온 횟수와 손자녀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는 현재의 관계, 양육 후의 변화,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갈등을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변인	하위영역	할머니(N=73)	할아버지(N=6)
연령	평균(표준편차)	64.5 (6.42)	73.3 (2.89)
	범위	51-79	70-75
거주 지역	농촌	37 ( 51)	4 ( 67)
	도시	36 ( 49)	2 ( 33)
	전체	73 (100)	6 (100)
배우자 유·무	유	40 ( 55)	2 ( 33)
	무	33 ( 45)	4 ( 67)
	전체	73 (100)	6 (100)
학력	무학	3 ( 12)	0 ( 0)
	초교졸	15 ( 58)	0 ( 0)
	중졸	7 ( 27)	0 ( 0)
	고졸	1 ( 4)	1 ( 50)
	대학원졸	0 ( 0)	1 ( 50)
	전체	26 (100)	2 (100)
직업	농업·수산업	23 ( 82)	2 (100)
	일반직공,잡역부	2 ( 7)	0 ( 0)
	점원,배달판매원	2 ( 7)	0 ( 0)
	작가,종교가	1 ( 4)	0 ( 0)
	전체	28 (100)	2 (100)
종교	기독교	8 ( 24)	0 ( 0)
	천주교	2 ( 6)	1 (100)
	불교	19 ( 58)	0 ( 0)
	기타	1 ( 3)	0 ( 0)
	전체	15 (100)	1 (100)
건강 상태	매우 좋다	4 ( 6)	1 ( 25)
	대체로 좋다	4 ( 6)	0 ( 0)
	보통이다	13 ( 19)	0 ( 0)
	조금 나쁘다	23 ( 33)	0 ( 0)
	매우 나쁘다	25 ( 36)	3 ( 75)
	전체	69 (100)	4 (100)

양육실태는 손자녀를 담당했을 때의 손자녀 연령, 양육기간, 조부모와의 관계, 함께 돌보는 형제수, 손자녀의 건강과 조부모

가족의 월평균 지출과 양육비, 양육비 부담정도를 살펴보았다. 양육이유를 묻는 문항은 Glass와 Huneycutt(2002)에서 지정한 양육이유들을 중심으로 항목들이 선정되었고, 양육동기는 경북 여성정책개발원(2003)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조부모들은 여러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조부모의 생활변화는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생활변화를 다룬 Szinovacz, De Viney & Atkinson(1999)의 논문에서 사용한 문항을 근거로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 활동시간, 종교활동, 친구와 친척 만나는 일, 휴식시간, 음주와 흡연의 변화와 같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척도(훨씬 좋아졌다=1, 훨씬 나빠졌다=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손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부정적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지적된 신체적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을 합산하여 양육부담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생활변화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양육어려움은 손자녀를 기르면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인 과제 점검 및 학교생활지도, 좋은 식습관 갖게 하기, 좋은 친구와 사귀게 하기, 예의바른 행동, 건강하게 키우기, 집안일 돕게 하기, 규칙적인 생활, 자기물건 정리하게 하기의 8개 문항을 5점 척도(전혀 어렵지 않다=1점, 매우 어렵다=5점)로 측정하였다. 필요로 하는 양육지원은 Blackburn(2000)과 Landry-Meyer(1999)의 선행연구에서 조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측정을 위해 사용한 문항들 중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여 경제적 보조, 손자녀 학습지원,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나 기관, 손자녀 방과후 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가사지원, 정서적 지원, 부모 교육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제공 등의 7개 문항을 이용하여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정말 필요하다=5점)측정하였다.

양육부담은 조부모가 부모역할을 담당하면서 갖는 걱정이나 자신감등을 반영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7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응답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부담의 신뢰도계수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4년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손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조모 2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도구를 점검하였다. 본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손자녀양육 조부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에 위치한 19개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아동 1,362명을 대상으로 가족형태를 조사하였고, 그들의 응답과 담임교사의 확인을 통해 6%에 해당하는 80명의 아동이 조부모-손자녀가족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조부모들과의 접촉은 우선 전화로 이루어졌는데 면접승낙과 방문시간을 받은 후 보조연구원들에 의해서 1 대 1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인의 의사거부 혹은 동거

가족의 의사거부로 69명만이 본 연구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연령이 높은 노인들이어서 연구보조원이 문항을 하나씩 읽어가며 응답을 얻어내었다. 면접시간은 응답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였고, 가족 형태와 손자녀 양육, 생활변화와 양육어려움, 필요한 지원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양육부담과 관련 있는 변인들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에 따른 양육부담에서의 차이는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의 경우 Scheffe 검정을 이용하여 추후검증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양육실태와 양육동기

조부모들의 양육실태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는데, 손자녀가 0세였을 때부터 11세까지 양육담당을 시작하였고 평균양육시작 연령은 4세로 밝혀졌다. 손자녀가 한 살이 되었을 때부터 양육을 시작한 조부모가 전체의 26%를 차지하였으며, 5세 이전에 양육을 시작한 비율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인 5세 이전의 비율이 68%(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보다 높고 33%보다는(박창기, 2002) 훨씬 높은 수치이다.

<표 2> 조부모-손자녀가족의 양육특징과 경제적 형편

변인	하위영역	빈도(%)	변인	하위영역	빈도(%)
양육 연령	평균(표준편차)	4.08(2.96)	총지출	35만원미만	30 (42)
	범위	0-11		35-65	15 (19)
양육 기간	평균(표준편차)	6.5(3.20)		65-95	9 (13)
	범위	1-12		95-125	13 (18)
관계	친손자	64 (81)		125-155	1 (1)
	외손자	15 (19)		155-185	1 (1)
형제수			225-300	2 (3)	
	1명	38 (48)	가계 부담	많이 부담	36 (52)
	2명	36 (46)		조금 부담	25 (36)
3명	5 (6)	부담 없음		8 (12)	
자녀 건강	매우 건강	20 (28)	양육비 (단위: 원)	평균	172,000
	건강한 편	29 (41)		(표준편차)	(141,000)
	보통	7 (10)		범위	0 -
	약한 편	13 (17)			600,000
	매우 약한편	2(3%)			

양육기간은 1년 미만부터 12년까지의 분포를 보이는데, 평균 양육기간은 6년 6개월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가 돌본 기간이 6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5년 이상 돌본 조부모가 전체의 31%인 결과(Caputo, 2000)보다는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5년 이하 돌본 비율인 47%(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보다는 양육기간이 짧았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까지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임을 감안한다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조부모-손자녀가족도 그 비율이 증가하면서 손자녀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양육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부모가 돌보는 81%의 손자녀가 친손자였으며 외손자는 19%를 차지하여 박창기(2002)의 80.4%가 친손자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돌보는 손자녀 수는 1명이 48%로 제일 높았고 2명도 거의 비슷한 비율인 46%로 나타났으나 3명을 돌보는 조부모의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경(2002)의 결과인 돌보는 손자녀 수가 1명이 47%, 2명이 39%, 3명이 12%와 유사한 경향이지만 자녀수의 감소를 반영하여 1명을 돌보는 손자녀 수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돌보는 손자녀의 건강은 69%의 조부모가 건강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약한 편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조부모들이 손자녀 건강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결과와는 (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부모들은 대부분 친손자를 1명이나 2명 양육하고 있었으며 돌보는 손자녀들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손자녀 양육계기와 양육동기에 대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조부모들의 67%인 44명이 자녀의 이혼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맞벌이로 양육을 담당하게 된 계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오직 11%에 불과하였다. 재산탕진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이유가 10%를, 자녀의 질병이나 심대입신은 5%미만을 차지하여 주된 이유가 자녀의 이혼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양육계기로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 중 제일 높은 비율인 53%(박창기, 2002)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양육계기 중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이혼율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손자녀 양육동기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손자녀가 당연히 길러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싫거나 보육 시설에 보내기 싫어서라는 응답에는 각각 5%만이 대답하였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머지를 차지하였는데 행방불명 등과 같은 대답이 들어있었다.

<표 3> 양육이유와 양육동기 빈도와 백분율(%)

양육이유	빈도(%)	양육동기	빈도(%)
맞벌이	7 (11)	손자녀가 당연히	49 (82)
재산탕진	3 (5)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싫어서	3 (5)
사고 혹은 질병	1 (2)	보육시설에 보내기 싫어서	3 (5)
사망	4 (6)	기타	5 (8)
경제적 어려움	3 (5)		
이혼	44 (67)		
십대임신	2 (3)		
기타	2 (3)		

2. 조부모의 생활변화

손자녀를 양육한 이후 나타난 생활변화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두드러지게 부정적 변화가 나타난 영역은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로 훨씬 나빠졌다가 53%, 조금 나빠졌다가 25%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7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형편인데 69%의 조부모가 조금 나빠지거나 혹은 훨씬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손자녀양육이 59%의 조부모 건강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활동시간, 친구와 친척 만나는 일, 휴식시간에서의 부정적 변화는 35% 내외로 나타났으나 변화없다는 비율이 50% 내외로 더 높았다.

<표 4> 손자녀양육 후 생활변화 빈도와 백분율(%)

	훨씬 좋아졌다	조금 좋아졌다	변화 없다	조금 나빠졌다	훨씬 나빠졌다
건강상태	3 (5)	0 (0)	24 (36)	21 (32)	18 (27)
경제적형편	2 (3)	1 (2)	18 (27)	26 (40)	19 (29)
손자녀부모관계	7 (12)	4 (7)	3 (5)	15 (25)	32 (53)
자녀 관계	4 (6)	3 (5)	54 (82)	4 (6)	1 (2)
배우자 관계	2 (5)	4 (10)	28 (69)	6 (15)	1 (2)
경제활동	5 (8)	4 (7)	29 (48)	16 (27)	6 (10)
종교활동	3 (6)	1 (2)	42 (78)	3 (6)	5 (9)
친구만남	1 (2)	5 (8)	35 (56)	12 (19)	10 (16)
휴식시간	2 (3)	5 (8)	34 (54)	12 (19)	10 (16)
음주와 흡연	3 (6)	5 (11)	37 (79)	1 (2)	1 (2)

\*경제활동 이후 문항부터 응답은 좋아졌다를 많아졌다로, 나빠졌다를 줄었다로 변경하여 측정되었음

별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영역들은 다른 자녀와의 관계나 음주와 흡연, 종교활동에 보내는 시간들로 80%정도의 조부모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손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영역은 역시 손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로 19%의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기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손자녀 양육 후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Bowers & Myers, 1999). 배우자와의 관계는 17%가 나빠졌다에, 15%는 좋아졌다에 대답하여 부정적인 변화와 긍정적 변화가 비슷한 정도로 일어난 영역이었다. 손자녀양육으로 인하여 3분의 2 이상의 조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졌으며, 반 이상은 신체적인 부분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손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더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졌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부 신체적 건강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일부 선행연구결과((Bowers & Myers, 1999; Pruchno, 1999)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자녀와의 관계나 종교활동 혹은 음주나 흡연을 하는 횟수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양육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손자녀가 예의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거나 좋은 친구 사귀는 일을 지도하는 일에 제일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는데 60% 내외의 조부모가 이에 해당하였다(<표 5> 참조). 건강하게 키우기, 집안일 돕도록 가르치기, 규칙적인 생활하도록 하기, 물건정리하게 만들기와 같은 일들에는 45% 내외의 조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하였다. 조부모들은 학교생활지도나 좋은 식습관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45%가 어렵지 않다는 응답하였고 어렵다는 응답은 32%를 차지하고 있다.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의 일상생활보다는 도덕적인 부분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는데 지도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조부모들이 관심있게 지도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자녀양육을 위해서 조부모들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지원을 살펴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에 의하면 제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가사자원으로 60%의 조부모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손자녀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과 조부모를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각각 52%의 조부모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이었다. 경제적 보조나 손자녀의 학습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조부모들이 80%를 상회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기관이나 사람 혹은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일에도 그다지 필요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손자녀 양육어려움 빈도와 백분율(%)

	매우 어렵다	대체로 어렵다	보통이다	별로 어렵지않다	전혀 어렵지않다
학교생활 지도	12 (16)	11 (15)	16 (22)	16 (22)	18 (23)
좋은 식습관	15 (21)	8 (11)	17 (23)	19 (26)	14 (19)
좋은 친구 사귀기	23 (32)	19 (26)	9 (12)	11 (15)	11 (15)
예의바른 행동	27 (37)	17 (23)	17 (23)	5 (7)	7 (10)
건강하게 키우기	22 (30)	12 (16)	16 (22)	13 (18)	10 (14)
집안일 돕기	20 (28)	14 (19)	17 (24)	12 (17)	9 (13)
규칙적 생활	14 (19)	19 (26)	19 (26)	13 (18)	8 (11)
물건정리	17 (23)	17 (23)	13 (18)	10 (14)	16 (22)

<표 6> 양육에 필요로 하는 지원 빈도와 백분율(%)

	정말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경제적 보조	3 ( 5)	1 ( 2)	6 ( 6)	19 (30)	37 (58)
손자녀 학습지원	2 ( 3)	8 (13)	8 (13)	13 (20)	33 (52)
돌보아 주는 사람이나 기관	18 (28)	6 ( 9)	5 ( 8)	14 (22)	21 (33)
방과후 활동 교통편의 제공	23 (36)	10 (16)	7 (11)	10 (16)	14 (22)
가사지원	28 (44)	10 (16)	6 (10)	11 (17)	9 (14)
정서지원	17 (27)	16 (25)	10 (16)	10 (16)	10 (16)
부모교육 기술, 지식제공	16 (25)	11 (17)	4 ( 6)	11 (17)	22 (34)

4. 양육부담

조부모들이 느끼는 양육부담 정도는 7문항을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24.22로 문항 당 3.4정도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조부모들이 손자녀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조부모의 손자녀양육부담이 다른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그리고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었다.

조부모들은 가족원수가 적었을 때, 생활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양육부담을 더 많이 느꼈다고 보고한다. 조부모의 연령이나, 손자녀를 돌본 기간, 손자녀를 위해 지출한 양육비, 혹은 손자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작년 1년 동안 병원에 다녀온 횟수와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거의 관련이 없음을 <표 7>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7> 양육부담과 관련변인 상관관계표

	가족원수	조부모 나이	돌본 기간	생활 변화	양육비	병원 횟수
양육 부담	-.236*	-.039	.042	.245*	.013	.037

\* p< .05

<표 8>에는 양육부담에 관련있다고 밝혀진 변인들이 양육부담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족관계나 손자녀의 성별 및 연령은 양육부담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아를 기르는 조부모들의 양육부담 평균값이 남아들의 평균값보다는 높았고, 손자녀가 어린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이 나이든 손자녀의 조부모들보다 양육부담의 평균이 더 높았지만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배우자가 있고 없거나 조부모의 건강 정도가 조부모의 양육부담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만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가 없는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이 있는 조부모들보다 양육부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분석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손자녀를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조부모의 양육부담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부모들은 양육부담이 훨씬 적었다. 추후분석 결과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의 양육부담은 많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자녀와 관련된 변인으로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살펴보았을 때 손자녀의 성적이 양육부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손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평가한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은 못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양육부담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손자녀의 건강이나 손자녀와의 친밀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아니었다. 양육하는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와의 관계는 조부모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조부모의 양육부담이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의 양육부담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인 자녀와 양육으로 인한 갈등이 조부모의 양육부담에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가족원수가 적을 때, 생활변화가 많았을 때 조부모의 양육부담이 높았고, 양육비 부담, 손자녀 성적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서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육비 부담이 적거나, 손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양육비 부담이 많거나, 손자녀가 공부를 못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나쁜 집단보다 유의하게 양육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부모의 건강(권인수, 2000; 김소희, 1997)이나 배우자의 유·무(Dowdell, 1995)가 양육부담에 차이를 만들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손자녀의 연령 (Dowdell, 1995; Kelly, 1993), 성별(Junior, Shore,



<표 8> 관련변인으로 살펴본 조부모의 양육부담 분석결과

관련변인	하위영역 (N)	평균	T/F 값		하위영역 (N)	평균	T/F 값		
관계	친손 (57)	24.05	-.453	손자녀 성적	잘한다 (35)	22.23 <sup>a</sup>	5.684**		
	외손 (15)	24.87			보통이다 (24)	24.63			
손자녀 성별	남 (36)	23.28	-1.309		못한다 (11)	28.90 <sup>b</sup>			
	여 (36)	25.17			손자녀 건강	좋다 (48)		23.48	
손자녀 학년	2학년 (34)	23.00	1.042		보통이다 (7)	25.14		.852	
	5학년 (38)	21.29			나쁘다 (15)	25.73			
배우자 유·무	유 (38)	23.03	-1.770		손자녀와 친밀감	좋다 (58)		23.67	2.183
	무 (34)	25.56				보통이다 (9)		26.56	
양육비 부담	많이 부담(8)	25.14 <sup>b</sup>	4.168*		나쁘다 (2)	31.00			
	조금 부담(24)	24.42			자녀와 관계	좋다 (35)		23.34 <sup>a</sup>	4.684**
	부담 안됨(36)	18.50 <sup>a</sup>		보통이다 (17)		25.18			
본인 건강	좋다 (9)	23.44	.089	자녀와 양육갈등	나쁘다 (10)	29.30 <sup>b</sup>	1.297		
	보통이다 (13)	24.28			많다 (9)	26.78			
	나쁘다 (50)	24.54			보통이다 (4)	21.25			
					적다 (49)	24.73			

\* p < .05 \*\* p < .01

Henderson & Labert, 1998), 조부모와의 관계(남명숙, 1999)에 따라라도 양육부담에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 또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없이 손자녀를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특성을 파악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계기와 양육동기, 손자녀양육으로 일어난 생활변화,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인 변인들과 조부모의 양육부담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의 양육을 손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시작하고 있었으며, 많은 조부모들이 친손자를 1명이나 2명 정도 양육하고 있었으며 돌보는 손자녀들의 건강은 대체로 건강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주된 계기는 자녀의 이혼으로, 부모가 가를 형편이 되지 못할 때는 손자녀가 당연히 조부모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양육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양육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그 뒤를 이었다. 손자녀가 예의바르고 좋은 친구를 갖게 지도하는 일이 조부모들이 지적인

어려움이었으며 가사지원과 말벗이나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손자녀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의 지원을 제일 필요로 하였다.

조부모들은 손자녀양육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족원수가 적을 때와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생활변화를 크게 느꼈을 때 양육부담을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양육비 부담이 높거나, 손자녀의 성적이 나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나쁠 때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의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손자녀양육 조부모들의 평균연령이 64.5세, 조부들은 73.3세로 나타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의 66.9세로 밝혀진 결과와는(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평균 연령은 53세에서 57세라고 보고하는 국외 연구들의 결과와는(Burton, 1992; Dowdell, 1995; Kelley, 1993; Minkler, Roe & Robertson-Beckley, 1994, Smith & Dannison, 2002)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우, 조부모-손자녀가족을 형성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십대임신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에서의 차이는 생활변화나 양육어려움 혹은 양육부담의 연구결과에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연령이 젊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조부모의 건강이나 학력, 경제적 형편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변인으로 작용하여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났던 차이들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부모의 연령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가족문화가 결합되어 국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손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이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에 반하여(Blackburn, 2000) 우리나라 조부모들의 지원요구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아직도 폐쇄적인 가족문화를 지닌 조부모들은 가족의 일은 외부의 도움보다는 가족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가치가 필요로 하는 도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손자녀양육이 대부분 조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조모들의 응답을 이용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과 가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조부의 평균연령은 조모들의 평균연령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인과 더불어 연령은 양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을 고려한다면 손자녀-조부가족은 손자녀-조부모나 손자녀-조모로 이루어진 가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의 제한으로 조모가족이나 조부모가족과 조부가족의 차이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추후연구를 통해서 조부가족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조부모의 양육부담에 손자녀의 성적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으나 학교생활지도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손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 별로 높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학습보다는 예의바른 행동이나 좋은 친구 사귀기를 지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응답은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도덕적인 생활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손자녀의 성적이 양육부담에 차이를 나타냈다는 결과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성적에 보람을 느낀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성적이 좋은 손자녀들이 공유하는 다른 특성들에 의해서 양육부담이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적이 좋은 손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손자녀들보다 자기관리를 더 잘 해냄으로 조부모들이 이들을 기르는데 부담을 덜 느끼고 있음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양육부담에 성적이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밝혀졌다고 하겠다. 손자녀의 특성과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다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대상의 지역적 거주지와 손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에 국한되어 있음은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에서 손자녀의 양육

을 전담하는 조부모들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집 수 일 : 2005년 03월 15일

□ 심 사 일 : 2005년 03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02일

#### 【참 고 문 헌】

- 강영자(2001)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미영(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희(1997). 모-조모 관계가 손자녀-조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명숙(1999).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지혜(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섭(1999).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4, 69-80.
- 최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통계청(1995, 200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Blackburn, M. L.(2000). America's grandchildren living in grandparent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2(2), 30-36.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Bullock, K.(2004). The changing role of grandparents in rural families: The results of an exploratory study in Southeastern North Carolina. *Families in Society*, 85(1), 45-54.
- Burnette, D.(2000). Latino grandparents rearing grandchildren with special needs: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3), 1-16.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 744-751.
- Caputo, R. K. (2000). Second-Generation parenthood: A panel study of grandmother and grandchild coresidency among low-income families, 1967-1992.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7(3), 3-20.
- Cox, C. B. (2000). *Empower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New York: Springer.
- Dowdell, E. B. (1995). Caregiver burden: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 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logic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3, 3-8.
- Dowdell, E. B. & Sherwen, L.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 8-13.
- Fuller-Thomp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 406-411.
- Gibson, P. A. (2002).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as caregivers: Answering the call to help their grandchildren. *Families in Society*, 83(1), 35-43.
- Glass, J. C. & Huneycutt, T. L. (2002). Grandparents parenting grandchildren: Extent of situations, issues involved,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8, 139-161.
- Hayslip, Jr. B., Shore, R. J., Henderson, C. E. & Lambert, P. L.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3B (3), S164-S173.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 206-216.
- Junior, B. H., Shore, R. J., Henderson, C. E. & Labert, P. L.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53B, 164-173.
- Kahana, E. & Kahana, B. (1970).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on grandparenthood. *Journal of Aging and Human Psychology*, 3, 98-105.
- Kell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Kelly, S. J. & Danato, E. G.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aternal and Child Nursing*, 20, 12-20.
- Kelly, S. J., Yorker, B. C. & Whitley, D. (1997). To grandmother's house we go... and stay: Children raised in intergenerational famil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3, 12-20.
- Kelley, S. J., Whiteley, D., Sipe, T. A. &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r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4(3), 311-321.
- Kennedy, G. E. (1992). Shared activitie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70, 211-227.
- Kropf, N. P., & Burnette, D. (2003). Grandparents as family caregivers: Lessons for intergenerational education. *Educational Gerontology*, 29, 361-372.
- Landry-Meyer, L. (1999). Research into action: Recommend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grandparent caregivers. *Family Relations*, 48(4), 381-389.
- Minkler, M., Fuller-Thomson, E., Miller, D. &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 445-452.
- Minkler, M., Roe, K. M. &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 752-761.
- Minkler, M., Roe, K. M. & Robertson-Beckley, R. J. (1994). Raising grandchildren from crack-cocaine households: Effects on family and friendship ties of African-American wom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1), 20-29.
- Musil, C. M. (198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455.
- Pinson-Milburn, N. M., Fabian, E. S., Schlossberg, N. K. & Pyle, M. (199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548-554.
- Pruchno, R. A. (1999). Raising grandchildren: The experience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 209-221.
- Silverstein, N. M. & Vehvilainen, L. (1999). Grandparents and schools: Issues and potential challenges. In C. B. Cox (Ed.), *To grandmother's house we go and stay: Perspectives on custodial grandparents*, 268-282. New York: Springer.
- Smith, A. & Dannison, L. (2002). Education educators: Programming to support grandparent-headed families. *Contemporary Education*, 72, 47-51.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Gerontologist*, 35(3), 386-394.
- Szinovacz, M. E. De Viney, S. & Atkinson, M. P. (1999).

Effects of surrogate parenting on grandparents'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54(6), 376-388.

Whitley, D. M. Kelley, S. J. & Sipe, T. A.(2001).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Are they at increased risk of health problems? *Health & Social Work*, 26(2), 105-114.